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6년도 표어 ◎
“성숙한 교회를 이루자”(엡4:13)
◎ 생활지침 ◎
섬기는 생활
주는 생활
경건한 생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교회설립기념 잔치 한창

오늘 찬양예배 시 성경암송 결선·교회학교찬양대의 시간 가져 온 성도가 참여하는 성극 “침묵의 노래” 12월 21일 공연 앞두고 연습

◇ 전교인성경암송대회 = 교회 설립 5주년 기념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시상식이 오늘 찬양예배 시에 거행된다.

요한복음 17장 전장을 외우는 이번 암송대회의 예선은 지난 주 일 교회학교별로 행해졌다. 본선에 오른 성도는 총 18명으로 이들은 지난 8일(금) 본선을 치렀다. 심사는 정확도, 자세, 반응도 등을 감안해 이루어졌다.

최종결선 결과 믿음상 고소영(유년부), 소망상 김보연(유년부), 사랑상 유숙인(유년부), 희락상 박창수(청년부), 그리고 화평상은 임종원(초등부)·박종민(장년부)·이옥현(소망부) 성도가 각각 수상했다. 이들 수상자와 최연소참가자 이평화(유치부, 7세) 어린이와 최고령 참가자 박래원(소망부, 80세) 집사 등 10명은 오늘 찬양예배 시 온 교우 앞에서 암송실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번 암송대회는 중·고등학교 생들이 시험기간 중임에도 적극 참여하여 심사위원들로부터 많은 격려를 받았으며 교부간에 참가한 경우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 감사찬양예배 = 오늘 찬양예배 시에는 교회학교 탁아부·유치부·유년부·초등부찬양대가 교회설립 5주년과 추수감사절을 감사하는 찬양을 드린다.

또한 다음 주일 찬양예배 시에는 할렐루야찬양대가 감사찬양을 드린다.

◇ 뮤지컬 “침묵의 노래” = 다가오는 성탄절. 우리교회 성도들은 온가족이 한자리에서 아기에

수님을 찬양하게 된다.

교회 창립 5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해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12월 21일(토) 서초구민회관에서 공연할 “침묵의 노래”는 천지창조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사건까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음악에 맞추어 수화로 진행되는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도 출연과 관람이 가능하도록 기획된 작품이다.

이 성극은 우리 교회 필그림예술선교단이 주최하고 모든 교회학교들이 동참하여 공연한다. 연습은 매주일 오후 3~5시, 7~9시 두 차례 사랑부실에서 갖고 있다.

문의는 필그림예술선교단(단장 박두호 집사, 지도 박귀환 목사, 연출 김옥경 집사)으로 하면 된다. <4면 참고>



“작은 순례자의 합창”이 16일(토) 오후 5시 교회 1층 예배실에서 열린다.

초등부찬양대가 주관하는 이

오늘은 교구별 노방전도

오늘 I·II·III부 예배 후에는 교구별 노방전도를 실시한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 주력부대는 9·10교구와 베드로 선교회 유년부, 초등부, 베들레헴찬양대이다.

교구별 전도대상지역

↑ 신사역

← 터미널

영동시장

● 위미에크 극장

● 제임은행

● 노원동지점

● 노원국교

● 제일생명

● 상정호점

9·10교구

7·8교구

11·12교구

3·4교구



지난 9월에 시작한 제 10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가 11월 4일 종강했다. 참석자들은 한 학기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봉사자들에게는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97년도 교회조직 확정

당회는 97년도 교회조직을 확정 발표했다. <4면에 조직표>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우리교회 11개 위원회의 위원장과 3개 기관의 기관장 그리고 지도 교역자들.

이에따라 각 위원회와 부서는 11월 중 하부 조직구성을 완료하여 12월 첫 주부터 셋째주까지 1997년도에 각 부서에서 수고할 일꾼들을 임명, 발표하게 된다.

“작은 순례자의 합창”

행사는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찬양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비전 2000운동 전도 집회의 하나로 올해로 4회째다.

이날 집회엔 초등부 찬양대원들의 합창과 중창, 독창이 준비되어 있고 플루트 독주와 피아노 독주, 그리고 초등부찬양대를 거처간 선배대원들과 함께하는 합주 순서도 있다.

특히 우리 교회가 올 여름에 농촌 전도를 갔었던 충남 울정교회의 이나영 어린이가 찬조출연, 첼로독주를 한다.

또 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고등부찬양대가 모두 출연하여 찬양을 드리는 순서도 마련되어 있다.

창세기
강해

바로의 환대

(창세기 45장 16 - 23절)

이종운 목사

애굽의 바로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선 요셉이 살던 시대의 바로가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현재의 역사적인 자료도 충분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그 형들이 애굽에 살게 된 것은 대략 히소스왕조(BC 1750 ~ 1567년경) 때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히소스는 지금의 터키지방에서 와서 애굽 북쪽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그들은 셈족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요셉을 애굽에서 등용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이 히소스왕조 초기에 애굽에 갔다면 유대인이 출애굽하기까지 애굽에서 산 430년동안 애굽은 람세스 2세의 통치기간이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환대를 받았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어느 시기에 살았는지 사랑을 받을만 했지만 특히 이 바로는 같은 셈족 출신이라는 데서 더욱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1. 요셉의 가족들을 향한 굳은 약속을 보아 바로는 요셉을 사랑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는 요셉의 형들이 수 년 전에 노예로 팔았던 자들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요셉의 인기가 절정에 오르고 있는 터에 그 형제들까지 함께 살라고 할 수 있었던 점에서 바로가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질투나 요셉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서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위하여 요셉의 가족들을 수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바로는 이 첫 번째 약속으로 요셉에게 사랑을 보였습니다(17 ~ 18절). 이것은 정직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이 정착할 곳인 땅은 애굽에서 가장 좋은 곳이었습니다.

2. 요셉의 가족에게 베푼 환대를 보아 바로는 요셉을 사랑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의 사랑을 받는 요셉이 바로로부터 받은 상급은 고향으로 수레를 보내 요셉 형제들의 온 식구들과 아버지를 모셔오도록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요셉이야말로 왕을 존귀하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인구만 노동력을 의미하는데 요셉의 온가족을 인하여 70인

의 가족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야콥은 애굽에서 돌아온 아들들의 보고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야콥이 생각한 그의 아들들은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보낸 수레를 보고 그 모든 일을 믿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은금패물을 보여줄 때 리브가를 신부로 내어놓은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3. 요셉이 형들을 위해 제안한 것을 바로가 받아들인 것을 보아 바로는 요셉을 사랑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는 요셉의 가족에게 모든 것은 다 버리고 여행에 필요한 것만 갖고 떠나오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잠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빌3:13 - 14).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에 우리의 전진을 방해하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의 소유가 우리를 포로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창고는 하늘에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곳은 좁과 동록, 도둑이 없는 곳입니다(마 6:20). 그리고 우리가 쌓아놓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딤후:12).

4.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가는 길에 필요한 것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바로는 요셉을 사랑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말대로 형들에게 수레를 제공했습니다. 새옷을 나누어주고 특별히 베냐민에게는 은 300세겔과 옷 5벌을 주었습니다(22 ~ 23절). 애굽에 두 번째 왔을 때 형들은 요셉과 함께 먹도록 초청을 받았고 요셉은 베냐민에게 5배를 주었습니다(창43:34). 다른 때 같았으면 질투심을 느꼈을 형들이 더 이상 질투심을 갖지 않은 것은 중생한 증거입니다. 베냐민은 충분히 받았습니다. 야콥은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10명의 형들도 옷과 음식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그들은 요셉과 화해했고 요셉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여 교제의 길이 회복된 복을 우

리가 누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빌4:19).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로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바로의 환대를 받은 요셉도 놀라는데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형들은 사실 죄값을 치러야 했지만 요셉의 형제라는 이유로 환대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가 형들에게 굳은 약속을 하고 선물과 수레를 보내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애굽에 속히 정착하기 위해 그들의 소유를 잊으라 한 것처럼 주님께셔도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고 계십니다.

“기독교와 폭력”

성경은 폭력을 어두움의 권세로 규정하고 있다(눅22:53). 불신, 불의, 미움, 자기 사랑의 결과가 폭력으로 노출되고 있지만 천국은 폭력을 수단으로 하여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폭력에 대하여 다른 폭력으로 맞서지 않으셨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진리를 가르치셨고 도리어 인내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가르치셨다. 폭력은 인간적 자기 수단이며 그의 목표는 자기 성취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좇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행동의 방법을 택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삶의 목표를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폭력자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행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도 없을 것이다.

간증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박운혜(집사, 7교구)

3월 14일 남편(나희주 장로)의 침상에 돌이 생겼다고 해서 입원수술을 받았다. 퇴원에 정일에 몇가지 검사를 더 해보아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짐작은 했으나 수술로 떼어낸 부분 세 곳이 모두 암이라는 사실에 눈물이 앞을 가려 우리 부부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우리라면 하늘은 너무도 파랗고 아름다울 것이고, 날마다 걷던 길도 새롭게만 보여 올랐다. ‘이런 것들을 얼마나 더 같이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면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을 찾으며 치료를 계속하였던 중 하루는 잠결에 “깨·꽃·하·다”는 음성을 들었다. 그 음성이 마음에 깊이 새겨질 정도로 선포했다. 남편도 꿈 속에 목에 더러운 것이 끼어있어 다 꺼내는 꿈을 꾸었다고 했다. 검사결과 암 4기. 5년 이상의 생존율이 20%정도라는 말에도 담담할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지를 굳게 해주셨기 때문이었다.

4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하루 두차례씩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한번씩 받아도 견디기 어렵다는 것을 두 배로 받은 남편의 목에는 피와 진물이 흐르고 입술은 일그러지고 혀를 어디두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입이 벌어 고통하는 모습을 눈물을 삼키며 지켜보아야 했다. 목구멍에서 피가 솟아나고 혀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중에도 나는 무서운 사람이 되어 식사를 강요해야만 했다. 모처럼 외식을 하러 갔다가 힘이 없어 주저앉는 바람에 남편의 화분을 두 개나 깨뜨리기도 했고, 길에서 쓰러지는 바람에 뒤에 있던 사람이 머리를 받쳐 주다가 귀가 찢어지기도 하였다.

가정에배를 드리며 기도할 때 미주잡은 내손이 너무 뜨겁고 커지면서 폭발할 것같아 사랑하시는 남편의 피 흐르는 상처를 감싸안고 기도하던 때를 어찌 잊을 수 있을까. 부족하지만 이 죄인의 기도와 사랑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울며 기도했는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하신 주님께 남편은 효자이니 그

새로운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서
이 일로 인해 복음의 문이 더 넓어지기를
간구한다.

모든 영광이 주께만 돌리며,
지금도 병 중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비쳐
승리하길 기원한다.

약속 지켜달라고 때를 써보기도 하였다. 남편의 옷을 다리면서 평생 다릴 수 있게 해 달라고 울며 기도했고 길을 걷는 백발 노부부를 보면서 부러워서 울면서 기도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하신 생명과 구원의 말씀을 외고 또 외우며 기도했다.

방사선 치료를 받는 40여 일동안 매주 화요일이면 성도들이 집에 와서 부흥회를 열어 주었고, 마지막 열흘간은 매일 모여서 모두들 목이 쉬도록 찬송과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였다. 어떤 장로님은 부인이 입원중인데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만 감추시고 매일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셨고, 어느 집사님은 지금까지

도 매주 생수를 길어다 주고 계신다.

방사선 치료가 끝난 6월부터는 항암제치료를 시작했다. 항암주사를 맞으면 물도 넘기지 못하고 말하려고 입만 열어도 구토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하시는 분들을 통해 큰 힘과 위로 받았다.

4번째 치료 후 이종운 목사님께서 전날 꿈속에 나 장로의 목에 껌이 잔뜩 붙어 있어서 밤새도록 그것을 떼어내다 깨어보니 목사님 자신이 목감기에 걸렸다고 하셨다. 그런데 그날 남편도 같은 꿈을 꾸었노라고 했다.

다음날 새벽, “내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겠느냐”는 음성이 들었다. 그 주일 당회실에서는 이종운 목사님을 비롯하여 부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두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남편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기도회를 가졌다고 했다.

10월 28일, 다섯번째 입원을 하였다가 퇴원을 앞두고 금식하며 여러가지 검사를 했는데, 할렐루야! 정말 정말 감사하게도 모두 깨끗하다고 했다. 이전에 고통의 눈물이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변했다. 교회로 달려가 감사기도를 드렸다. 철야기도회에 모인 성도들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쳐 주셨다. 아직 몇가지 검사가 남아 확실한 결과는 알 수 없지만 능력과 치유의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를 드린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어찌 다 형언할 수 있으며, 많은 분들에게 진 사랑의 빛 어찌 다 갚을 수 있을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서 우리로 인해 복음의 문이 더 넓어지기를 간구한다. 모든 영광이 주께만 돌리며, 지금도 병 중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비쳐 승리하길 기원한다.

이제는 더욱 힘써 주의 일을 하리라 결심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목회자신학세미나 현장에서 봉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현장”

오승민(목회자세미나 봉사자, 초동부 교사)

주님께 택함을 받은 것도 감격스러운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그 뜻을 이루는 데 사용받는다는 것은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각할수록 더욱 깨어서 감사하며 봉사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목회자신학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의 봉사는 참으로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강단을 말씀으로 새롭게해야 한다는 열의를 가지고 전국에서 오셔서 공부하시는 목회자들의 모습에서 신앙의 격려를 받았으며, 월요일의 피곤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넉넉히 이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

님께 쓰임받는 분들을 생각하며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서울교회 가족들로부터 받은 은혜 또한 컸습니다. 시종 밝은 얼굴로 하나님의 종들을 대접하는 모습과 사랑과 섬김의 자세, 서로를 향한 격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느끼며 하나님께 영광돌렸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풍성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히 채우신다는 것을 맛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순서가 순조로이 진행되었고, 무엇

보다도 주차문제에 다소 어려움을 갖고 시작하였던 이번 학기에 돕는 손길과 협력자들이 많이 생겨 무리없이 한학기를 마칠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에 열심을 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체험했습니다.

처음 봉사하는 날 저는 조금 쑥스럽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처럼 봉사를 하고 싶어도 용기를 못 내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기회로 여기고 다음 학기부터는 함께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는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

1997년도 교회조직

▼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지도
당 회 서 기	정병무	
예배위원회	박철훈	김명현
찬양위원회	김대호	임진태
교육위원회	홍정호	박귀환
교구위원회	김광신	이순환
전도위원회	김태기	원 호
선교위원회	노문환	원 호
구제위원회	이남호	이성득
차량·관리위원회	오정수	
재정위원회	오정수	
건축위원회	임광식(장)	박철훈(부)
동산관리위원회	최종시	

▼당회 소속 기관

기관	담당	지도
출 판 국	이영기	김명현
장 학 회	윤봉준 나희주	이성득
한국교회갱신연구원 (KIMCHI)	오정수 최종시	박귀환

▼교육위원회

교회학교	지도	부장
탁 아 부	이영희	성준경
유 치 부	최양순	김영준
유 년 부	이상진	이영기
초 등 부	이성득	최종시
중 등 부	박귀환	홍정호
고 등 부	김명현	박철훈
대 학 부	원 호	정병무
청 년 부	이만열	노문환
장 년 부	임진태(김영한)	김광신
소 망 부	우심화	이남호
사 랑 부	—	김태기

▼찬양위원회

찬양대	대장	지휘	오르가니스트·피아니스트
가브리엘찬양대	정병무	허희철	안진희·안선영
할렐루야찬양대	김대호	빅정선	조은주·정은영
임마누엘찬양대	김상철	배영준	한현숙·백송희
베들레헴찬양대	이영기	임훈규	유혜련·홍혜란
호 산 나 찬 양 대	김윤자	서희숙	홍혜란
시 온 찬 양 대	김중수	강민희	이주은·양경실

▼교구위원회

교구	지도	부장
제1교구	박귀환	오정수
제2교구	박귀환	정병무
제3교구	이성득	성준경
제4교구	이성득	김태기
제5교구	원 호	홍정호
제6교구	원 호	김광신
제7교구	임진태	김대호
제8교구	임진태	이영기
제9교구	이순환	윤봉준
제10교구	이순환	노문환
제11교구	김명현	박철훈
제12교구	김명현	최종시

신임서리집사 면접·교육

1997년도 신임 서리집사 후보 면접 및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통보를 받은 서리 집사 후보는 가능한 시간을 택하여 3차 중 1회만 참석하면 된다.

* 면접

- 1차: 13일(수) 12:30 ~ 15:00
- 2차: 13일(수) 20:30 ~ 22:30
- 3차: 14일(목) 06:00 ~ 07:00

* 교육

- 1차: 20일(수) 12:30 ~ 15:00
- 2차: 20일(수) 20:30 ~ 22:30
- 3차: 21일(목) 06:00 ~ 07:00

사랑부 지도교역자 청빙

사랑부를 지도할 교육전도사를 찾고 있다. 자격은 일반대학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신대원 2학기 이상을 수료한 자로서 장애인선교에 사명이 있는 자여야 한다.

대학부 총회

대학부는 지난 주일 제 4차 총회를 갖고 회장에 최지연 군, 부회장에 박윤정 양을 각각 선출했다.

주님, 이 생명을 구원해 주옵소서!

'96 비전2000운동 태신자 명단 ⑤

전도자	태신자
박금옥	탁봉계 탁봉남 탁재연 탁봉심 이경우
위성남	김윤채 위성운 홍기명 최영숙 위성욱 위성수 위지환
조정옥	조길행 이순덕 김용희 조선행
남미희	박창중 박춘자 서순희 김문규
박계순	양상용

필그림예술선교단 활동 보고서

서울교회 필그림예술선교단은 예술활동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자 1996년 1월에 창단되었습니다. '순례자'라는 뜻의 '필그림'이라는 이름은 복음을 들고 어디나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필그림예술선교단은 그간 3차에 걸친 해외순회공연을 가진 바 있습니다. 오는 12월 21일에는 서울교회 온 성도들과 함께 교회설립 5주년을 감사하고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면서 공연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1997년 1월 20일부터 한 달 간 또다시 해외에서 선교활동을 겸한 영어 뮤지컬캠프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정이 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선교단 활동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장애

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시작된 필그림예술선교단에서는 음악, 연출, 기획, 미술 분야에 많은 장애인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김옥겸 집사)



▲ 필그림예술선교단의 해외순회공연 모습

■ 목회자·교우동정 ■

- * 이종운 목사는 4일(월) 목회자신학세미나 제10학기 종강의 자리에서 한국교회갱신연구원 동문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 * 홍준모 집사(7교구, 김동호 권사 부군)는 5일(화)에 팔순감사예배를 드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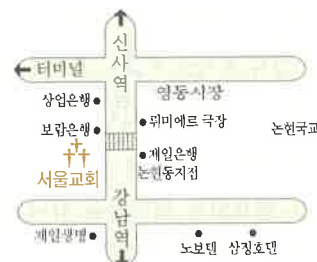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춘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상」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교회설립 5주년 기념행사를 위하여
2. 비전2000운동을 위하여
3. 수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을 위하여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